

金原一 소설의 세계

- < 가족관계 · 굶주림 · 죽음 > 을 중심으로

허선영 *

I. 序論

II. 本論

1. 김원일 소설의 전반적 성격
2. 가족관계
3. 굶주림과 죽음

III. 結論

I. 序論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제의 질서와 권위가 주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가부장제의 질서는 파괴되기 시작했고, 대신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역세고 모진 여성으로 자신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권의 상실속에서 자란 4,50년대의

* 4학년

소년들은 전쟁이 남겨놓은 무서운 현실과 대면해야만 했고, 낭만과 행복 대신 생존해야만 하는 현실과 맞서야만 했다. 이에 비해 6,70년대에 태어난 전쟁 미체험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경험담과 성장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풍요롭고 안정적인 가정 구조에서 자라나 '부권의 부재, 어린 소년가장, 모진 생명력의 어머니'와 '전후의 궁핍상'을 공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기성세대의 한 일원인 작가 김원일은 문학을 통해서, 기성세대와 전쟁 미체험 세대간의 간격을 좁혀준다. 김원일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 분단, 인간소외, 산업화, 환경오염, 빈궁 등의 사회적 역사적 문제와 가족간의 화해, 소년의 성장, 삶의 이해과정을 다룬 인간 보편적 문제가 삽입된 작품을 창작해왔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속에는 가족 모티브, 죽음 모티브, 굶주림 모티브가 자주 등장한다. 이 세 모티브는 작가의 분신인 작품 속 주인공이 겪었던 것이며, 김원일의 원체험인 동시에 전쟁 체험 세대들의 원체험인 것이다. 이 세 모티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관계, 굶주림, 죽음'의 모티브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결국 김원일 문학의 깊이를 짐작해 봄과 동시에 전쟁 체험 세대들의 사회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사의 폭과 깊이를 이해할 때, 김원일은 반드시 언급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평자들은 김원일의 문학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단 소설을 탁월하게 그려낸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다시 들로 나누었는데, 류보선과 김주연은 한국 전쟁의 이념적 허위성 허구성을 고발한 작품들을 '남성적 욕이오 문학'이라 하고, 일상적 삶의 파탄과 왜곡을 드러낸 작품들을 '여성적 욕이오 문학'으로 구분, 명명하고 있다. 1) 김원일의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온 듯하지만, 대부분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주로 거론되어 왔으며, 김원일을 '분단작가'로만 규정짓는 편협한 시각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동하는 분단소설의 한 패턴을 개막시켰다고 평하면서, '①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한 분단 이데올로기 ② <진영>을 분단사의 압축된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시킨 점 ③ 다양한 세대가 총망라된 인물, 현실적 이슈를

1)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마당 깊은 집』 해설판, 1988.

종합한 사건, 광범위한 테마' 등의 요소를 추출했다.²⁾ 분단 소설의 주제면에서, 김현은 민족의 사랑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 대답일 수 있다고 「분단의 소설적 포착」에서 지적했고,³⁾ 이철범은 「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을 통해 분단 상황을 보여주어 통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했으며,⁴⁾ 정과리도 「소설 주체의 집단화」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⁵⁾ 김병익은 「비극의 각성과 수용」에서 '귀향모티브'를 통해, 6·25컴플렉스의 수용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극을 긍정 수용하는 태도가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준다고 했다.⁶⁾ 이외에도 김원일의 분단소설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는, 김치수의 「융합되지 못한 삶」,⁷⁾ 윤재근의 「생존의 부정에 대한 거부」,⁸⁾ 김병걸의 「정치 의식과 인간조건」,⁹⁾ 성민엽의 「화해와 긍정의 세계」,¹⁰⁾ 류보선의 「김원일 문학을 보는 두 개의 시선과 앞으로의 과제」,¹¹⁾ 등이 있다. 김원일의 초기 단편작들에 관한 연구로는 박혜경의 「실존의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들의 세계」,¹²⁾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김원일이 자주 사용한 '가족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김현의 「이야기의 뿌리」,¹³⁾와 김주연의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¹⁴⁾가 있는데 이 두 저서는 『마당깊은 집』의 '모자관계'에 초점을 맞춰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용백은 「부권 상실 시대, 그 소설적 변용」,¹⁵⁾에서 세 편이 성장형 소설 -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 과 비교하

2) 이동하, 「끊임없는 자기 확대의 길」,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3) 김현, 「분단 소설의 포착」,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나남, 1966).

4) 이철범, 「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 『분단·문학·통일』, (종로서적, 1988).

5) 정과리, 「소설 주체의 집단화」,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 1985).

6) 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 『현대문학』 1978년 10월.

7) 김치수, 「융합되지 못한 삶」, 『문학과 지성』, 1977 여름.

8) 윤재근, 「생존의 부정에 대한 거부」, 『현대의 한국 문학-김원일』 해설, 1983.

9) 김병걸, 「정치 의식과 인간조건」, 『창작과 비평』, 1974 가을.

10) 성민엽, 「화해와 긍정의 세계」, 『현대문학』 1985.9.

11) 류보선, 「어둠에서 계전으로, 비극에서 비극성으로」, 『작가세계』 1991 여름.

12) 박혜경, 「실존의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들의 세계」, 『작가세계』 1991 여름.

13) 김현,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 1992).

14)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마당깊은 집』 해설, 1988.

15) 하용백 「부권 상실 시대, 그 소설적 변용」, 『서울신문』, (1991. 1. 8.)

며, 모자관계를 파악하였다. 김주연은, 모자관계가 '동화와 소외의 반복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고, 김현은 '가짜 아버지 · 진짜 소년-가짜 아내 · 진짜 어머니'의 관계라 칭했는데 김주연과 비슷한 견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반면 하응백은 대리부권(어머니)에 대한 반발과 부성에 대한 그리움이 모자관계의 그리움이 모자관계의 구조라고 보았다. 그리고, 김현은 '소년의 성장 과정'을 '사회화'라 명명했고 하응백은 '아버지 찾기 · 아버지 되기'라고 명명한 것이 차이가 난다.

이제까지의 '모자관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나, <아버지-어머니-소년(나)> 상호간의 작용과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작가가 산출해낸 작품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를 드러낸 김원일의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家族象을 토대로 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그러한 작품들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어머니-소년(나)>간의 상호관계와 작용을 고찰하기 위해 모자관계가 중심이 된 작품인 『마당깊은 집』과 『깨끗한 몸』을 중심으로 하고, '아버지象'이 드러난 여러 작품들을 필요에 따라 채택하며, <굶주림과 죽음>에서는 '노을'과 『마음의 감옥』을 위주로 하여 두가지 체험이 갖는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년기의 상황이나 기억이 인간의 정신생활 속에 깊이 관여한다는 Alfred Adler의 『개인 심리학』¹⁶⁾을 기초로 하여 '소년의 심리'를 파악하려 한다.

결국 본고에서는 김원일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작중 화자인 '소년'의 사회화 성장 과정에 <가족 · 굶주림 · 죽음>의 모티브가 어떤 영향을 주며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本論

본론에서는 그의 문학 작품의 기본 줄기를 형성하는 '가족사' 특히 '가족관계'를 밀도있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 이야기'를 줄곧 해온 이유와 그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찾아내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어머니-소년(나)>

16) Alfred Adler, 설영환 譯,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7).

라는 세 인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 <굶주림>과 <죽음>의 내용도 여러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굶주림>과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한다.¹⁷⁾

이를 위해 우선, 김원일 문학 세계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김원일 문학의 전반적 성격

김원일은 1966년 4월에, 『매일신문』 모집의 <매일문학상>에 「1961년 알제리아」가 당선되면서 크고 작은 작품들을 근 25년동안 꾸준히 써왔다. 그의 작품은 크게 두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그의 훼손된 가족사를 드러내고자한 것과 다른 하나는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된 민중의 삶을 그려낸 것이다. 김원일의 삶에는 해방, 6·25, 4·19, 5·16, 7·4와 유신 등 우리 근·현대사의 커다란 계기들이 모두 있었고, 또한 훼손된 가족, 그로 인한 가난, 아버지 없는 장자로서의 고통, 좌절, 우울 등이 있었다. 그는 이런 것에 끊임없이 좌절하면서도, 좌절을 딛고 올바르게 극복해가는 '自己擴大'를 이루어간다.

그때 나는 내가 앓고 있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현실적으로 치료하거나 그 현실과 대결하여 극복할 일이 아니라, 병든 영혼과 막막한 불안을 붙들고 있어야 하며 그 불안을 글로 써야 한다고 느껴왔다. 비로소 나는 갈길을 어렵פות이 결정하게 되었다. 문학이 든든한 성체로서 나의 앞에 한 의지의 표상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¹⁸⁾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는 길로서 '글'을 택하게 되었고, 그 '글'을 통해서 성실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치열한 자세로 자신의 길을 확대해 갔다. 대부분의 평자들은 작가 김원일을 분단 소설 작가의 대명사로

17) A.아들러/H.오글러, 설영환 譯,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7), p.103 참조.

"어린 시절부터 기억되고 있는 사건은, 그 개인의 주된 관심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의 주된 관심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목표나 인생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에 필자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8) 김원일, 『사랑하는 자는 피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2), p.96.

칭하고 있는데,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어둠의 魂』(『월간문학』 '73.1)과 『노을』(『현대문학』 '77.9 - '78.9)을 6·25 소재 가족소설의 원형을 갖춘 것으로 평하고 있다. 즉 70년대의 6·25소설의 형식이란,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파멸된 가족사가 6·25 직전과 현재를 교차하며 전개되고, 이것은 귀향(회상)을 통한 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¹⁹⁾ 그 인식은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는 조국의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현재까지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의 근원을 찾아내어, 거기서 주저 앉거나 혹은 화해할 수 없는 골을 확인함으로 끝나진 않는다. 더 나아가, 가족사적 화해를 위해 몸부림을 해나가며, 그것은 혈연적 관계의 화해를 통해 민족사적 회복 화해의 의미를 부여한다. 김현은 70년대의 전형적인 가족소설 - 제재상으로는 좌익운동을, 기법상으로는 어린애의 시선이 나 일인칭 서술 -은 분단의 비극을 말하고 있지만 주관적 체험세계일 뿐 그 인식이 역사적인 세계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원일의 작품은 '주관적 현실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객관적 현실주의'로 나아가는 확대를 이룩하는 뛰어난을 보인다고 평했다.²⁰⁾

이후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한 분단주체의 소설은 매우 다각적인 면모로, 전이·융합·상승되어 나타나는데, 『어둠의 魂』, 『노을』의 좌익 빨치산 아버지 문제는 『불의 祭典』('83), 『겨울골짜기』('87)의 빨치산 중심 이야기로 발전된다. 가족사적 비극의 문제는 『미망』('84), 『마당깊은 집』('88)의 탄력적인 6·25 가족소설로 나아가며, 여기에 부수적으로 『환멸을 찾아서』('83)에서와 같이 한 좌익 운동가에 대한 가상 체험세계가 남아진다.²¹⁾ 김원일의 문학적 성과 중의 하나는 『노을』에서 선보인 귀향 모티브가 일제시대 염상섭의 『만세전』, 한설야의 『과도기』, 이기영의 『홍수』, 『고향』에서 비롯하여 해방후 허준의 『잔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고, 이후 6·70년대의 김승옥의 『무진기행』,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80년대의 이동하 『破片』, 현기영의 『순이삼촌』, 조정래의 『인간의 문』, 현길언의 『귀향』으로 이어져 분단소설의 중요한 내적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²⁾

19) 박덕규, 『박덕규 문학평론집-문학과 탐색의 정신』, (문학과 지성사, 1992), p. 24.

20) 김현,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88), p.173

21) 박덕규, 『삶의 길, 머나먼 道의 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92), p.173

22) 류보선, 『어둠에서 제전으로, 비극에서 비극성으로』, 『작가세계』 1991 여름, (세계사, 1991), p.41.

김원일은 '귀향모티브'를 통해 개인사에 배어있는 피의 역사를 보여 이념에 대립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그래서 분단의 진정한 극복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김원일의 문학적 공헌 중에 다른 하나는 좌익 빨치산을 한국문학의 공간에 끌어들이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김승옥의 『전』이나 윤홍길의 『장마』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뤄진 빨치산은 『어둠의 魂』, 『노을』, 『불의 제전』과 『겨울꿀짜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진다.²³⁾

『겨울꿀짜기』는 빨치산 투쟁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거창 양민 학살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전쟁이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으로 인간을 옥죄이고 살아남음에 따른 고통의 극한을 인간은 어느 한계까지 견디어 내는가> (『작가의 말』중에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대지로서의 역사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과 황폐함을 굽어보는 작가의 비극적 시각을 보여주며, 그것은 윤리적 태도에 다름아니다.²⁴⁾ 즉, 다른 말로 휴머니즘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전쟁은 바로 폭력이며 그렇기에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원일의 휴머니즘적 태도는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감싸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까발리는 적극성'²⁵⁾을 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는 그의 작품중에서 대표작이라 불리는 『어둠의 魂』, 『노을』, 『불의 제전』, 『겨울꿀짜기』등의 분단 가족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와 평가를 개괄해 보았다. 김원일의 여러 단편들은, 이러한 장편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그의 단편작품들은 사회문제나 역사적 사건들이라는 굵직한 주제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내밀한 정서나 섬세한 삶의 양태를 반영하여, '분단 문학작가 김원일'이라는 통념을 깨고, 그의 문학 내적인 풍부함을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청년기를 보낸 60년대는 소년·유년기의 죽음·전쟁의 고통에서 생긴 정신적 외상에 기인한 절망한 좌절의 실존주의가 풍미하던 때였다. 그래서, 『어둠의 祝祭』(『현대문학』 '67.7~'68.4), 『소설적 사내』(『현대문학』 '68.7), 『여자여 이 戰慄을』(『현대문학』 '69.5), 『그대 죽어 눈뜨리』('69.12), 『喪失』('72.2), 『빛의 陷沒』('72.6),

23) 김현,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88), p.176.

24) 심형기, 『분단사의 소설화에 대한 사색』, 『작가세계』(세계사, 1991 여름), p.93.

25) 김현,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사, 1988), p.178.

『發病에서 沈默까지』('72.11), 『절망의 뿌리』('73.3)등이 그것이다. 이 작품들은 개인을 둘러싼 황량한 세계에서 개인이 취하는 자기파멸의 양상을 드러내 보이며 살인·폭력등의 상황을 통해 부조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일의 초기 소설에서 부각되는 주인공들의 우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양식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황적 억압성에 짓눌린 뒤틀리고 왜곡된 심리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존적 분위기를 질게 풍기는 이들 초기 단편 소설에는 부조리한 세계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멸감이 있긴 하지만, 삶에 대한 실존적 고뇌 속에서 이미 삶을 이루는 상황을 운명적인 것으로서 가 아닌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능동적 태도로 점차 변해 간다.²⁶⁾

작중 인물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바로 작가의 현실 인식의 변화와 맞물린다. 『빛의 함몰』과 『비가』에서 학생운동 경험의 좌절적 인물이 등장하고 『어둠의 혼』, 『갈증』에 이르러서는 체험의 공간 속으로 이동해가게 된다. 그리하여,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는 역사성의 수용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변적인 세계라는 출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수동적으로 매몰되었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고통을 자신의 삶의 몫으로 힘겹게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안게 된다. 『마음의 감옥』(이상문학상 수상작,1990)에서 나타난 작가의 시선도 이와 동계의 것이다. 작가 김원일이 꾸준하고 성실한 작가이며, 자기 확대를 일구는 구도적 작가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주관적 원체협에서 시작하여 점차 객관화로, 그리고 더 넓은 시선으로 포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류의 단편으로는 『목숨』, 『따뜻한 돌』, 『시골 여인숙』, 『母子』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편들에 나타나는 어머니들은 현실의 삶에 대지와도 같이 밀착해 있는 생활인들이다. 생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삶을 이어나가는 억척스런 생명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들의 억척스러움은 우리나라의 파행적 역사 상황에서 비롯한 아버지의不在에서 기인한 듯 하다.

그것은 우리 현실을 이끌어가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가치 이념의不在 현상과도

26) 박혜경, 『실존의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들의 세계』, 『작가세계』(세계사,1991 여름),p.123.

무관하지 않은데, 김원일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대개 생존의 과제만 남아있는 극도로 가난한 현실이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들(長子)을 키우는 것은 ‘아버지성의不在’ 뒤에서 가족들의 끈질긴 생존을 이끌어가는 어머니들의 억척스런 생애의 의지다.²⁷⁾

결론적으로, 25년간의 크고 작은 그의 작품들이 작가 김원일의 원체험에서 비롯하긴 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부단히 되돌아봄으로써 사회, 역사, 인간으로 확대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 세계는 가족사라는 기본적인 줄기에다가 폭넓은 역사적 현실이 가미되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 끈질긴 생명력이 그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가족관계

文學은 삶에 대한 끝없는 反省의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하여 문학은 우리가 살아갈 때 多樣한 삶의 樣態를 提示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質問하게 하고 懷疑하게 하고 苦悶하게 하는데 그 存在 價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作家는 求道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그늘 향해 摩耗되어가는 정신의 깊이에 대하여, 현존 논리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神秘한 運命을 探究하며 늘 고민하는 존재자입니다.²⁸⁾ (밀줄-필자)

인간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慾望이 내재해 있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게 되거나, 혹은 일종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형태로 日記를 들 수 있다.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김원일이 말한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며 고민하는 반성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억압의 뿌리와 대면하게 되며, 정신적 상처를 治癒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즐기치게 해오고 있는가? 여기서 그의 ‘가족 이야기’

27)위의 책, p.131 참조.

28)김원일·권성우·우찬제 대담, 『인간과 문학의 심오한 본질을위한 도정』, 『문학정신』 1990 5월.

의 기본축인 <아버지-어머니-소년(나)>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억압의 근원을 캐보고, 어떻게 치유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김원일이 쓴 대부분의 短篇, 中篇, 長篇소설들은 自傳의 색채가 강하다. 즉 자전적 애기에 小說的 變容이 가해진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가족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어둠의 魂』, 『노을』, 『불의 제전』, 『어둠의 變態』, 『未忘』, 『가을별』, 『깨끗한 몸』, 『마당깊은 집』, 『不忘』, 『鳶』 등의 작품에는, 左翼 아버지로 인해 야기된 疲弊한 가정환경과 억척스런 생명력을 지닌 偏母膝下에서 자란 장남인 '나'로 要約되는 공통 모티프가 축을 이룬다. 여기에 할머니, 누나, 동생 그외의 여러 가족관계가 한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반응을 보이며, 그 사건과 관련된 작은 삽화들이 덧붙여져 긴박감을 이룬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욱 풍부화되고 구체화된다. 여기서 話者가 큰 관심을 갖고 追跡하는 것은 아버지·어머니와 그로테스크한 죽음에 드리워져 있는 成치 못한 兄弟(姉妹)다.

김원일의 年譜를 살피다보면, '아버지'란 존재와 직접적 대면을 한 때가 1948년 5월에서 1950년 10월 하순까지의 서울생활이었는데, 만약 그 체험이 없었더라면 아버지란 존재는 그의 삶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行績이 그쯤으로써 나의 삶과 무관해져 버렸다면 나는 당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할 무엇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을 美化시킬 필요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 완성시켜야겠다고 마음 가질 어떤 당위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 내가 나의 아버지 生涯의 풀지 못한 의문은 그 시절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생의 목적을 修正했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깊이 감춘 채 더러운 恥辱의 세월을 소일삼아 탕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광복의 시점부터 당신의 삶은 분명 거둬 태어남이었다. 짐을 버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는 돌연 군내 지식인의 사두가 되더니 생사를 초월한 과격하고 열렬한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나의 문학은 아버지의 그 변신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때부터 보여온 또 다른 의미의 이중성을 풀어보기 위해 당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은 되풀이함으로써 길을 열었다.²⁹⁾ (밑줄-필자)

29)김원일, 『죽음·태어남·고향』, 『소설문학』(1985. 6), pp.150-161.

해방전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부인을 두곤 했던 아버지가 해방후 과격하고 열렬한 좌익 민족주의자로 변하는 '이중성'은, 7살의 어린 작가에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가족에겐 배고픔을, 어머니에겐 고통만 던져주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단편 『어둠의 혼』을 발표한 1973년 32세 이후로, '가족사'가 갖는 의미에 눈을 뜨게 되고 유년기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다. 작가가 언급한 아버지의 '이중성'은 여러 작품에서 걸쳐 고스란히 형상화되거나 일종의 변형을 거치기도 한다. 즉, 『어둠의 혼』, 『연』에서는 수수께끼같은 신비한 아버지로, 『노을』, 『농무일기』에서는 무식하고 폭압적인 아버지로 나타나며, 『도요새에 관한 명상』과 『환멸을 찾아서』에서는 소심하고 무력하지만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해선 강한 집착을 보이는 아버지, 『불의 제전』에선 역사적인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다.³⁰⁾

이것은, 『노을』, 『미망』, 『어둠의 혼』, 『마당깊은 집』, 『깨끗한 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저주하는 '왜곡된 아버지의 모습' 대신에 아버지의 맨모습을 확인하려는 작가의 '아버지 찾기'라 할 수 있다. 김원일에게 있어서 '아버지 찾기'란 부정적 면보다도 긍정적 의미가 강하다. 비록,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긴 했으나, 그로 인해 소년에게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큰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노을』은 40대 중반의 출판사 중견 사원인 '나'의 현재와 29년전 소년시절의 과거가 교차되는데, 현재의 '자주빛의 마른 핏빛 노을이 가물 가물 기억의 실마리를 집어내어, 잊으려 지우고 지워 온 깊은 상처를 새로이 끌어' 내게 되고, 뼈아픈 과거를 들추게 된다.

손톱에 물들이는 봉숭아물도, 닭벼슬 같은 맨드라미 꽃도, 코스모스의 보라색도 다 싫다. 어머니의 젓꼭지 색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떠올리게 해주고 어머니의 피멍든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보라색은 또 말라붙은 피와 감감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다.³¹⁾ (밑줄 필자)

30) 김원일, 『어둠의 혼』, 『김원일 문학선, 薦』, (나남, 1985), pp. 78-79 참조.
 ———, 『薦』, ———, pp. 19-20.

———, 『노을』, 『제 3세대 한국문학 6』, (삼성출판사, 1986), pp. 27-31.

31) 김원일, 『어둠의 혼』, 『김원일 문학선, 薦』, (나남, 1985), p.265.

아버지의 색깔이며, <어둠> <죽음> <악>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싫어하지만, 밑고자의 혐의를 입고 아버지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한 그는, 아버지를 빨갱이로부터 빼내려한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하나, 『노을』 후반부에 가서는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분명 어둠을 맞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이리라'는 말로써,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몇 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에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不在'로 인해 불구가 된 가정환경에서 키운 그의 소년·청년기는 고통과 추위·배고픔·외로움등의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중고등학교를 다닌 시절은 무슨 악몽과 같이 떠올려진다. 가난하게 자란 어린 시절과,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소외감과 전쟁으로 겪은 고생탓에 어머니는 모진 여자로 변해 자식을 매질로 키웠다. 특히 장남인 나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솥포대 회초리로 온 몸에 찌름이 서게 맞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데려온 자식>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다.……중략……나는 삶이 괴로웠다.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나 빨리 늙어 노인이 되기를 원했다. 노인이 되면 장남으로서의 의무도 벗고 죽는 날만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사람 눈흘기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³²⁾

남편의 부재로 발생한 결핍상황을, 장자가 메꿔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는 늘상 그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구속을 원망하거나 벗어나기를 갈구하는데 『깨끗한 몸』과 『마당깊은 집』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i) '길남아, 니 아부지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설움을 당하겠나. 여자 혼자 바느질 해먹고 산다고 정기자 사람 짚보는 거 봐라.……중략……길남아, 길은 오직 하나다. 니가 크야 한다. 질대(왕대)같이 얼렁 커서 튼튼한 사내구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이 에미 과부 설움을 풀 수가 있다.'³³⁾ (밑줄 필자)

32) 김원일, 『사랑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pp. 206-207.

33)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89). p. 117.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중략……나는 도무지 어머니의 그 맺힌 恨을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하얗게 센 노인이 되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 날 아침 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였다.³⁴⁾(밀줄- 필자)

『깨끗한 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ii) 더러운 세월을 애비없는 설움으로 ……중략……길남아, 뒷날 우리 식구가 이 고생하고 살았을 때를 웃으며 이야기할라 카모 니가 우째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알고 있제? ³⁵⁾ (밀줄-필자)

나는 대답을 않고 묵묵히 걸었다.……중략…… 그 말씀에 보답할 자신감이 없었으므로 폭꺾인 고개가 들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돌아나던 뻣뻣한 날개가 갑자기 소금에 절인 푸새처럼 축축 처져 내림을 느꼈다.³⁶⁾ (밀줄-필자)

話者が 성장해감에 따라 자기가 세계의 중심, 가족의 중심임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머니’가 큰 작용을 한다. 어머니의 비정-독기라 표현해도 좋을 단단함은 혼자 남은 여성 특히 전쟁터에서 혼자 남은 여성 특유의 생존 본능과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장남을 향한 남편에의 대상심리로 파악될 수 있으며 누구에겐 기대어야 할 심리적 지주를 장남을 통해 발견하려는 어머니는 ‘어머니-장남’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설움을 고스란히 옮겨놓음으로써, 아직 어린 장남은 어머니와는 또 다른 의미의 ‘서러움’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⁷⁾ 어머니는 남편의 부재로 발생한 ‘缺乏狀況’을 自己閉鎖/訓練과 동시에 장남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데, 소년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부재는 ‘결핍상황’이었다.³⁸⁾ 그리고, 소년을 ‘아들’로서

34) 위의 책, p. 117.

35) 김원일, 『깨끗한 몸』, 『마당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89), p. 228.

36) 위의 책, pp. 228-229.

37) 金柱演, 『母子關係의 疎外/同化의 구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 지성사, 1989), p.115.

38) 위의 책, p. 115.참조.

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役割을 해내길 바라는 어머니의 욕구는 다시 어린 소년에게 '모성의 不在/缺乏'이라는 이중의 抑壓을 안겨주게 된다.³⁹⁾ 애비없는 子息을 강하게 키우려하는 『깨끗한 몸』의 어머니는 '이마에서 코로,코 밑으로 뺨'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런 때밀기를 통해 장남을 '훈련/동화'시키는 훈련과정을 보인다.⁴⁰⁾ 그리고 『마당깊은 집』에서는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카모 그런 經驗이 좋은 약'이 될거라며 팔십환의 밑천으로 신문팔이를 시킨다. 그러나, 가혹한 매질과 울음,다짐 등으로 소년은 '다리밑에서 주어 온 자식'이거나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낳아 집으로 데려온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출하는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⁴¹⁾

그러나, <도피>라는 심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년(길남)은 무의식중에 어머니의 훈련들에 동화되어 원망, 증오하다가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즉,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의식은 언제나 소외되어 저항한다.⁴²⁾ 이것이 그의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와 장남간의 독특한 '동화/소외'관계의 구조인 것이다.⁴³⁾ 그런데 그 '동화/소외'관계는 나름대로의 복잡성을 띤다.어머니는 아들인 나를 '가짜 아버지'로 만들어 남편에 대한 온갖 분풀이와 설움을 쏟아붓는다.⁴⁴⁾ 어머니의 행위는어린 '소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큰 짐이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모자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설움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갖는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愛憎은 『어둠의 혼』의 겁 많고 온통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는 '나약한 어머니', 『미망』과 『깨끗한 몸』의 체격이 우람한 여장부에서 『가을별』이 '쾌활하고 말이 없는 어머니'에 이르는 극단적인 여러 어머니의 형상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서른 둘에 청상이 되신 뒤 홀몸으로 세파를 이겨온 분풀이와 설움'을

39) 위의 책, pp. 115-116.

40) 위의 책, p. 116.

"『깨끗한 몸』은 어머니가 장남 길남에게 그녀 스스로의 자기 훈련을 요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무의식적인 동화로 동화시키는 장면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41) 김원일의 「남은자의 부끄러움-제 14회 이상 문학상 수상 소감」, (문학사상사, 1990), pp. 444-445.을 보면 그가 사상의 도피를 얼마나 갈구했는지 알 수 있다.

42)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 지성사, 1989), p.116.

43) 위의 책, p. 116.

44) 김현,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사, 1992),p.93.

‘숫포대 매질로 표현하는 어머니를 순종으로서 달게 받아들이는’ 화자를 통해 이중의 애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부인과 다시 혈육의 정을 느끼는 확인의 과정이 줄곧 되풀이 된다. 소년이 가짜 아버지이며 진짜 아들이듯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이면서 가짜 아내다⁴⁵⁾ 이속에서 소년의 이중의 애증이 싹트기 시작하며, 그 이중의 애증은 아버지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이 구조는 아버지가 되려는 심리의 외디푸스적 콤플렉스와는 성격이 다른데, 만약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내재해 있다면 <가장>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며 또한 부자가 경제적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이드가 지적한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주는 억압속의 幻影이 그의 작품에 드러나기도 한다.⁴⁶⁾

예를 들면 ① 아버지는 범법자이지만 운동가이기도 하며 어머니는 거칠지만 자상하기도 하다 (부모를 낮추면서도 높이고 싶은 욕망)는 점 ② 나는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자부심, 부담 (偉大해지고 싶은 욕망) ③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와 女湯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近親相姦을 피해가는 시도)는 점 ④ 막내에게 어머니를 빼앗긴 뒤의 부아 꺾음 (兄弟間에 경쟁)등 김원일의 소설에는 프로이드가 든 거의 모든 동기가 산적해 있다.⁴⁷⁾ 부재하는 아버지로 인해, 나와 어머니는 <아버지-아들/아내-어머니>라는 새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失蹤’은 가족의 화해와 결속을 이끌어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를 억척스런 생명력으로 변모시켰고, 어머니는 장자를 통해 남편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나아갔다. 어린 소년에겐 이것은 억압이었고 짐이었다. 세상을 이해하기도 전에, 세계와 가족의 기둥으로서 있기를 강요하는 어머니에 대해선 애증이 엇갈렸고, 부성의 결핍과 함께 모성의 결핍도 남게 된다. 탈출만이 자신의 심리적 억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그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에 의해 왜곡되어왔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다. 아버지 찾기⁴⁸⁾를 통해 도피가 아닌

45) 위의 책, p.143.

46) 위영희는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아동학회, 1983년 제 4집)에서 S.Freud의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버지로부터의 거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데 외디푸스 갈등은 이러한 아버지의 공격성에 의해 동기화되며 이 갈등의 극복은 소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동일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게 된다.”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47) 김현,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사, 1992), p.195.

48) S.Freud, 이용호 譯, 『에슬론』, (백조출판사, 1973), p.293.

가장의 주체로 서나가는 자기성장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의 소설속에 보여주는 '포용하는 인간애'를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모자의 관계는 <동화/소외>의 구조와 <부정/확인>이 반복되고 있다. 그 반복은 '변덕'을 부리는 소년의 심리상태로 나타나는데, 그 변덕의 기저에는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다. 다른 애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김현은 이 과정을 <성숙> 또는 <사회화>⁴⁹⁾라고 명명했는데, 저자가 올바르게 성숙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랐음을 필자는 일련의 그의 작품속에서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큰 짐을 짊어져 비틀거리는 강마르고 왜소한 한 소년의 성장과정과 대면하게 된다. '가짜 아버지'라는 가짜 신분이 저자에게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그를 글쓰게 한 잠재적 동력이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도피>만을 꿈꾸던 청년기에 쓴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 분단문제·인간소외·산업화 등의 시대적 역사적 문제를 거쳐 결국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아버지-어머니-나'를 만남으로서 그의 억압은 해소되고 더욱 성숙하게 된 것이다. 작가는 가족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이것이 현실이며, 나는 장남으로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각성·성숙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중오가 아닌 비극을 수용하는 화해를 하게 된다. 이것이 그의 소설이 암울한 색채를 띄고 있으면서도 소외된 계층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간애가 스며나오는 힘이라 생각한다.

김원일의 소설 대부분은 '자기 사회화'의 과정을 반추해봄으로써, 화자의 가난과 고통의 개인적 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것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적 허무를 그렸던 초기 작품들에서부터, 『어둠의 혼』, 『노을』, 『불의 제전』으로 이어지는 작품과 『바람과 강』, 『늘 푸른 소나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의식은 경쟁자로서의 아버지와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로 양면적이며, 아버지에 대한 경쟁으로부터 존경으로의 이행이 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턱이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아버지 찾기’를 통해 성인의 질서에 편입되는 사회화를 거친다는 의미이다.

49) 南美英, 『한국 현대 성장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114.
 “부권에 대한 거부와 중오에서 아버지와의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사회화이며, 결국은 가정과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아버지의 세계인 사회로 편입되는 것이 사회화이다.”

무』 등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대작을 필연적으로 잉태시킨 것이다.

3. 굶주림과 죽음

김원일의 소성에는 앞에서 언급한 '① 좌익에 가담했다가 총살 혹은 실종되는 아버지 ②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가는 어머니 ③ 삶의 불가해성과 괴로움을 느끼는 어린 아들'이라는 가족관계의 줄기에다 부수적으로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체험이 더해진다. 6·25 유년기 체험세대들에겐 '굶주림'이란 필연적이었기에 유독 김원일에게만 특이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나타난 굶주림과 죽음 체험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굶주림>이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원체험이며, 그로 인해 성실함 집요함의 태도로 문학성의 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즉, '자기성장'을 이루게 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자꾸만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의 <가족관계>처럼, 이 <굶주림> 역시 과거를 반성하고 회회하게 하는 구도적 태도를 낳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경험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즉 그 <굶주림>의 기억은 자신의 심적 억압의 근원과 만나게 하며 소설속의 운명이 작가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와 화합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예는 『노을』에서 발견할 수 있다.

i) 고향을 떠나 산 스물 여덟 해 동안 나는 하루라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치모의 말처럼 고향을 잊으려고 노력해온 만큼 이곳은 나로 하여금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좌익 폭동의 상처라고 해도 좋고 굶주림이라 해도 좋다.⁵⁰⁾ (밑줄-필자)

유년기의 아픈 상처로 상징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굶주림'의 원체험은 6·25 유년기 체험 세대의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대상화된 자신의 운명을 동화시키는 '고행의 모습'인 것이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소년의 '자기성숙'과 '사회화'를

50) 김원일, 『노을』, (문학과 지성사, 1978), p.260.

이루게 한 힘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피폐되고 자학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있는 초기소설에서부터 자전적 요소와 역사의식이 만나는 후기소설에 이르기까지 굶주림의 체험은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심지어 <바람>처럼 떠돌면 기를 잃고, <물>과 함께 있어야 기를 얻는다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제목의 『바람과 江』에서조차 '밥 먹여주고 재워준' 동족을 배신했다는 죄의식이 나타나 있다.

ii) '갑득이가 하도 배고프다 짜서 버얼씨 왔어예. 그 자속은 아까 장바닥에서 죽어온 외곬데기를 씹고 있더라. 나도 하두 더부서 찬물만 마셨어예. 그랬더니 배가 폴랑폴랑 안 캅니까?51)

iii) 세살박이 만복이가, "밥 도고, 밥 많이 도고"하며 칭얼칭얼 짜기 시작했다. 검누렇게 뜬 얼굴이 제접스러운 데다 영양 실조로 어깨와 갈비대가 뼈가죽만 쓰고 있었다. 거기다가 배는 울챙이처럼 볼록했고, 배 위로 푸른 심줄이 보였다.52)

iv) 아우는 어느 사이 안짱다리 걸음으로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신생아기에 굶은 벌충이라도 하듯, 여름철이면 길바닥에 버려진 수박이나 참외 껍질을 닦치는 대로 주워 먹었다.……중략…… 유아기의 건강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었듯, 아우는 유아기의 굶주림으로 오장육부가 발육단계부터 부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 자명했다.53)

이처럼 굶주림에 허덕이는 형제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25세의 나이로 요절한 김원일의 막내 아우 김원도가 여러 인물로 변용되어 나옴을 그의 가족관계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의 형상을 드러낸 것으로만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굶주림은 전생 유년기 체험 세대의 고유한 공감대임과 동시에, 김원일이 삶을 인식하게 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51) 김원일, 『노을』, (삼성출판사, 1986), p.25.

52) 위의 책, p.25.

53) 김원일, 『마음의 감옥』, (문학사상사, 1990), p.57.

v) 그러면 공연히 코 끝이 시큰해지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배고픔처럼 속을 뜯으며 가슴을 저려왔다.⁵⁴⁾

vi) 이제 아버지의 그 요술은 끝이 나고 말았다. 무엇을 위한 요술인지 알 수 없는 요술. 그 요술의 뜻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는다는게 슬플 뿐, 사실 나는 지금 보다 더 큰 외로움에 떨고 있다. 굶주림이다. 배가 고프다. 지독하게 배가 고프다.⁵⁵⁾

여기서, 소년의 시각으로 본 세상의 불가해성을 '요술'이라고 표현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야기된 외로움과 슬픔은 '굶주림'이라는 육체적 고통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철들기 시작할 무렵에 느끼는 혼돈의 사회속에서 좌절하는 심적 상태와 알 수 없는 부모들의 행동을 '지독하게 배가 고프다'로 표현한 것이다. 육체적 고통인이 '허기증'은 욕망 결핍의 상태를 보여줌에 있어서 어떠한 추상적 관념어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준다. 신체적 고통으로 대비되는 허기증은 깊이 들어가면 소년의 정신적 결핍 상황과 닿아있다. 즉, 정신적 결핍상태를 '배고프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배고픔을 인식케 한 두려운 세상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며 삶인 것이다.

그리하여, 무서운 현실을 짐지워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는데,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한 아버지(父權)에 대한 미움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vii) '준호 아버지는 한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 숟가락 놓자마자 상을 걸터넘고 나서서 부랄이 요령 소리가 나도록 뛰어댕겨야 제 식구들 먹이 살린다.'⁵⁶⁾

굶주림은 결핍상황이고, 무서운 세상살이를 실감케해주는 감각이다.

54) 김원일, 『노술』, (문학과 지성사, 1978), p.253.

55) 김원일, 『어들의 혼』, (나남, 1985), p.77.

56)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88), p.28.

『마당깊은 집』의 '어머니'가 원하는 장자의 모습은 어쩌면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었기에, 소년은 발버둥치면서 피하려 하지만, '준호 아버지'와 '주역술'을 보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온밀히 비춰진다.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김원일은 쓰고 또 쓰면서, 굶주렸던 어린 시절의 쓰라림과 외로움, 그 고통의 기억과 대결한다. 그는 배고픔의 기억을 반추하면서 확대해가는데 『마음의 감옥』의 결말 부분에선 '사회화'로 형성된 장자의식이 놀라운 확대를 이룬다.

vii)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오누이 셋이 그해 겨울 그렇게 남행길을 재촉했듯이, 우리들은 마치 포연을 뚫고 진군하듯 최루탄 매연을 헤쳐 침대를 끌고 받은 걸음으로 걸었다.57)

즉 빈민운동을 하다 간경화로 죽은 '안짱다리의 배굶던' 아우 현구를 매개로, 속물화되버린 4·19세대의 자기반성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적극적 태도로 변모하게 된다. 결국 굶주림의 원체험은 끝없는 자기반성을 추동시킨 힘이었고, 개인적인 상처에서 벗어나 화해를 하고, 앞길을 모색케 한 동기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4·19세대 전체의 장자의식,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몸을 일으켜 이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세대의 자의식과 책임감과 결부되어, 절박한 위기국면에선 언제나 사회적 도덕적 부패와 파국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굶주림>의 모티브처럼 <죽음>의 모티브도 자주 등장하는데, 남미영은 『한국 현대 성장 소설의 연구』에서 성장소설58)의 주요 모티브를 <성에 눈뜸>, <죽음의 인식>, <환멸과의 만남>, <惡의 체험>,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 등 6가지로 범주화했다.

57) 김원일, 『마음의 감옥』, (문학사상사, 1990), p.80.

58)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 소설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150.

“성장소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젊은이들 그런 소설로 주인공의 성장의 과정에

성장 소설적 느낌을 주는 그의 소설에서의 <죽음>은 <굶주림>과 마찬가지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어둠의魂』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밤과 연관되며 그것은 공포이고, 슬픔의 시간으로 상징된다. 반면 아버지와 행복했던 시간은 낮과 관련되고, 서정적인 안온함의 시간으로 대립된다.

ix)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나의 가슴에 소름을 일으키며 아프게 파고 든다. 나는 갑자기 오들오들 떨기 시작한다. 서른 일곱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나 큰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어버린 아버지의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다.59)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話者에게 공포를 일깨워주고, 실존적 삶의 본질을 느끼게 한다.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소년에게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허무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생의 집착으로 재생되는 것이다.

x) 나는 무엇인가 깨달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느낌을 꼬집어 내어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이를테면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은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나는 이제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서 힘차게 버티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60)

'아버지의 죽음'이 살아야겠다는 생명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외에도 <죽음>의 체험 모티브가 자주 등장하는데, 『미망』에서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며, 『목숨』에서는 어린 아들을 묻어주는 처절한 어머니의 생명력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든 인물과 사건은 주인공의 존재론적 변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매우 보통 아이로 시작하여 바른 가치관을 갖는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을 그린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회화는 힘과 질서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동의·정당화·화합을 의미한다."

59) 김원일, 『어둠의 혼』, 『김원일 문학선-薦』, (나남, 1985), pp.97-98.

60) 위의 책, pp.97-98.

애정이 엿보인다. 그리고, 『불망』에서는 祖父와 父母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처럼 수많은 작품 속에 <굶주림>의 체험만큼이나 수없이 등장하는 <죽음>은 결국 작가의 원체험이며, 정신적 고통과 결핍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굶주림>과 <죽음>을 통해 '성인의 삶'과 만나게 되고, 장자의 위치에 스스로 서려는 '자기 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의식은 바로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쬐어본 태도, 즉 휴머니즘적 태도를 낳게 했으며, 김원일 문학의 성격을 형성시킨 동력인 것이다.

그의 장자의식은 바로 4·19세대 전체의 장자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잿더미가 된 패허에서 몸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세대의 자의식과 책임감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절박한 위기국면에선, 사회의 부패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III. 結論

이상에서 김원일의 성장과정을 참고하면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가족관계-굶주림-죽음' 모티브가 작가의 分身인 話者(소년)와 작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筆者는 김원일의 연보와 개인 산문집이 작가가 창작한 많은 작품들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 개인사가 중심이 된 작품들 속의 話者는 작가의 분신이라는 전제 속에서 本考를 진행시켰다. 앞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듯이, <가족이야기>는 김원일 문학의 핵심구조로 짚을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가족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아버지-어머니-소년(나)' 간의 상호 작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는데, 특히 모자관계를 세밀히 포착한 『마당깊은 집』과 『깨끗한 몸』을 주대상으로 했는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不在'는 김원일 문학의 공통 모티브로서, 『마당깊은 집』과 『깨끗한 몸』에서도 적용된다. 父權의 失蹤下에서 어머니는 家長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조만간 소년이 그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 代理父權으로 존재한다.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부재'라는 缺乏이 있으며 '대리부권'이라는 짐을 해소시키기 위해, 소년을 訓練시킨다. 그러나, 소년도 어머니와 똑같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결핍의 상태임과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가장의 역할'을 요구받는 二重의 抑壓狀態를 겪고 있다.

(2)소년의 이중적 억압이라는 심리는 반발을 필연적으로 낳는데, 특이한 점은 回歸하는 反復이다. 이 '反復'은 어머니의 '울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작가는 母子關係를 통해서, 소년(즉, 作家)의 억압된 심리상태의 원인을 드러내려했고, 가족끼리의 화해와 용서속에서 소년이 점차 어머니의 대리부권을 자신이 인계해가는 '사회화'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존재는 가족간의 화합을 이끌어주는 긍정적 역할과 가짜 아버지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소년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작용을 한다.⁶¹⁾

(3)결국, <가족 이야기>는 화자의 억압의 근원이었고, 이 억압을 극복해냄으로써 사회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굶주림과 죽음의 모티브도 이와 동계인 것이다.

김원일 문학에 자주 묘사되는 '굶주림'은 '가족관계'에서의 결핍상황처럼 애정의 결핍이며, '세상이 무섭고, 두렵다'는 어린이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실존성과 무서운 세상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굶주림과 죽음'은 잊을 수 없는 유년기 원체험이며, 이를 매개로 과거와 교룡이 이루어진다. 필자는, 자신의 원체험인 이 세 요소를 극복하고 이해함으로써, '人間間的 화해와 용서'라는 휴머니즘적 주제를 필연적으로 잉태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日記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행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비록 소설적 변용이 더해졌지만- 억압의 근원을 찾게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평론가들이 극찬해 마지 않았던 김원일의 잠재적 저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61) <아버지-어머니-소년>의 삼각관계는 외디푸스적 갈등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소년의 갈등이 점차 해소해가는 것에 기인한다. Freud에 따르면, 외디푸스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사내아이가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일시'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숙(사회화)'해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필자는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權寧瑕. 『한국현대문학사년표 (1)』,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병걸. 『정치의식과 인간조건』, 『창작과 비평』, 1974년 가을.
- 김병익. 『비극의 각성과 수용』, 『현대문학』, 1978.10.
- . 『시대의 무게와 인간의 삶』, 『제 3세대 한국문학-김원일』해설, 1983.
- 김원일. 『남은 자의 부끄러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소감, 문학사상사, 1990.
- .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마당깊은 집』해설, 1988.
- 김치수. 『융합되지 못한 삶』, 『문학과 지성』, 1977 여름.
- 김 현. 『객관적 현실주의로의 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 1988.
- . 『달관의 역사적 의미』, 『분석과 해석』, 문학과 지성, 1988.
- . 『분단소설의 포착』,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나남, 1966.
- . 『이야기의 뿌리, 뿌리의 이야기』, 『말들의 풍경』, 문학과 지성, 1992.
- 南美英. 『아버지-아동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아동학회 제 4집, 1983.
- 류보선. 『어둠에서 제전으로, 비극에서 비극성으로』, 『작가세계』, 1991 여름.
- . 『김원일 문학을 보는 두개의 시선과 앞으로의 과제』, 『작가세계』 1991 여름.
- 류철균. 『대상화된 운명의 형식』, 『작가세계』, 1991 여름.
- 박덕규. 『엄정한 비판정신에서 넉넉한 자기완성까지』, 『작가세계』, 1991 여름.
- . 『삶의 길, 머나먼 道의 길』, 『문학과 탐색의 정신』, 문학과 지성, 1992.
- 박해경. 『실존의 역사, 그 소설적 넘나들의 세계』, 『작가세계』, 1991 여름.
- 서정기. 『역사와 신화적 열림』, 『작가세계』, 1991 여름.
- 성민엽. 『화해와 긍정의 세계』, 『현대문학』, 1985.9.
- 신형기. 『분단사의 소설화에 대한 사색』, 『작가세계』, 1991 여름.
- AFRED ADLER, HERTHY ORGLER. 설영환 譯.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7.
- 위영희. 『아버지- 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아동학회 제 4집, 1983

- 윤재근. 「생존의 부정에 대한 거부」, 『현대의 한국문학 20』, 남한출판사, 1985.
- 이동하. 「꿈임없는 자기 확대의 길」,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 이철범. 「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 『분단·문학·통일』, 종로서적, 1988.
- 정과리. 「소설주체의 집단화」,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 1985.
- 조남현. 「<긴장>의 인간학, 그 분광」, 『한국현대작가 연구』, 문학사상사, 1991.
- 차춘현. 「父不在와 母-子 상호 작용의 질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금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3.
- THEO HERRMANN 伊瀉變 譯, 『경험적 성격 심리학』, 중앙적성출판부, 1984.
- 하용백, 「父權喪失의 시대, 그 소설적 변용」, 서울신문, 1991.1. 8.